



조직
개혁

한도인을 위해
유일하게 정부와 맞붙은

3

손세희

이번에는 바꿔보자!



ASF 국가적 방역대응

-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제안하고 관철
- 피해 농가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보상 요구

손세희는 뵙니다.

구제역 물백신 소송으로 양돈인을 위해 당당하게 싸웠습니다.

한돈인의 권익보호

- 입법/정책 수립 과정에 능동적 대응
- 자금률을 지키고 대기업의 양돈업 확장 저지

손세희는 뵙니다.

투쟁할 때 투쟁하고 주장할 때 주장하겠습니다.

2세 경영 지원

- 상속/증여세 포함 원활한 사업 승계를 위한 제도 마련
- 2세를 포함한 청년 양돈인 부회장 2인 추가 선출

손세희는 뵙니다.

2세 청년 양돈인과 미래 양돈을 열어 가겠습니다.

농가가 주인되는 한돈협회

협회-자조금 혁신과 역량 강화

- 전문가 책임 연구조직을 만들어 이슈에 선제적 대응
- 지역 한돈인과의 소통과 정책 지원 강화

손세희는 씁니다.

미리 고민하고 함께 대처하겠습니다.

국민 공감, 사랑받는 축산인

- 현실에 맞는 K동물복지를 제안, 관철
- 대언론 영향력 및 홍보 역량 강화

손세희는 씁니다.

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양돈업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.

환경 기후변화 대응

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 지원 촉구
- 불합리한 환경 규제에 적극 대처

손세희는 씁니다.

환경-기후변화 대응을 한돈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.

손세희는 부농이 아닙니다.
자신의 농장만 키우는 부농은
한돈인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.

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최고의 브레인들이
손세희와 함께하는 이유는 그가 부농 이어서가 아닙니다.
오로지 양돈인을 위해 힘쓰는 성실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.

**한돈인 모두를 위해
정부와 싸웠습니다.**

준비서면

가합24831 손해배상(기)
나눔농장 외 43
이 편문을 준비합니다.

1.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문서 부제
피고는, 을 제22호증(정기감사결과보고, 이하
답서 등을 기초로 최종적으로 작성된 감
것이므로, 문답서의 주요 내용 및
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

그러나 보도자료와 감
라 기재된 내용의
고서의

